

전주한옥마을서 '조선팝' 공연 선보인다

오늘 한벽문화관 화명원서 '조선팝 힐링 콘서트' 비대면 개최

전주한옥마을이 국악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 성지로 뜬다. 전주시는 15일 한옥마을 내 한벽문화관 화명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과 흥을 되찾아주기 위해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팝 힐링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 공연에는 '놀거나 즐기러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창작그룹 '행락객'이 판소리의 흥겨운 장단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조선팝 무대를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과 흥을 되찾아주기 위해 관객거점도시, 전주를 찾아온 때 이른 행락객'이 이날 공연의 콘셉트다.

소리꾼 최보라, 드럼 정유진, 건반 최민성, 피아노·태평소 이동현이 참여해 춘향가와 심청가, 흥보가 등의 공연을 펼친다.

특히 흥보가 중 박을 타는 모습을 휘모리장단으로 선보이는 조선의 랩 부분과 드럼, 피아노, 태평소 솔



전주시는 15일 한옥마을 내 한벽문화관 화명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과 흥을 되찾아주기 위해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팝 힐링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 공연에는 '놀거나 즐기러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창작그룹 '행락객'이 판소리의 흥겨운 장단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조선팝 무대를 선보인다.

로가 돋보이는 '박 터지는 노래'는 신명 나는 가락과 입에 붙는 노랫말

로 한껏 흥을 돋울 예정이다. 공연 영상은 다음 달 유튜브 채널

'조선팝TV'에서 볼 수 있다. 조선팝 TV는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운영하는 채널로, 지난해 11월 서도밴드와 함께한 '전라감영 조선팝 콘서트' 공연 영상을 매주 목요일 한 곡씩 만날 수 있다.

향후 시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이 잠재 관광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정기적인 조선팝 공연을 추진해 전주를 대표하는 공연콘텐츠로 조선팝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팝과 그리고 국악과 재즈, 힙합, K-POP 등 다양한 현대음악과 플라보 등 전통에 대중성을 입힌 전주만의 공연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사계절 내내 조선팝을 즐길 수 있는 조선팝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유기동물 입양 시 비용 일부 지원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서 입양하는 경우 1마리당 최대 15만원 예방접종비·질병진단비·치료비·중성화수술비·미용비 등

동물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유기동물 인양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주시 10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지원 한도는 부담 금액의 60%로,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유기동물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 운영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재활센터는 2달가량의 기본훈련과 길들이기, 사회적응훈련, 미용 등 유기견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진교성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인양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한옥마을 음식점·한옥체험업소 시설 개선·고급화 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주방·화장실 시설 개선 등 지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음식점과 한옥체험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개선 성과가 담긴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소 5곳과 음식점 11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고급화 사업을 벌였다.

한옥체험업소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한옥체험업소의 화장실 확장 등 내부 시설개선사업에 최대 3,000만원(자부담 30% 이상)까지 지원했다.

한옥마을 음식점 고급화 사업을 통해서도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과 식기교체, 전통정원 조성, 비대면 서비스 개선 등에 최대 2,000만원(자부담 30% 이상)까지 지원했다.

이번 한옥체험업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한 박지혜 "그여자네집" 대표는 "한옥의 감성을 간직한 한옥 객실을 조성함으로써 '프라이빗한 한옥에서 여행객들이 온전히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업소의 지향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음식점 내·외부 공사와 함께 테이블과 의자, 식기교체 등을 개선한 안명자 '신방이' 대표는 "전주비빔밥 등 전주음식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업소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관광서비스 환경을 갖추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객들의 여행형태와 관광서비스의 니즈는 전과 완전히 바뀐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전주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 설 연휴 5대 범죄 66건... 작년보다 29.8%↓

나흘간 이어진 올해 설 연휴 기간 전북지역은 대형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도내에서는 총 66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절도 35건, 폭력 25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6건 등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4~27일)에 발생한 94건보다 28건(29.8%)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5일간 도내에서는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지난해(1월 23~27일)의 경우 82건 발생에 사망 5명, 부상 136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대폭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펼친 종합치안 활동을 통해 자살기도자를 보호소에 인계하고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귀가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다.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금은방(377곳), 금융기관(1,033곳) 및 편의점(1,239곳)에 대해서는 취약요소 범죄

예방진단(3,937회), 범죄사태·신고요령 등 온·오프라인 홍보(4,608회)를 펼쳤다. 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222가정)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설 명절 기간 일평균 112신고(2월 13일 밤 12시 기준)는 전년 대비 5.5건 37.9%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수송지구대는 지난 9일 군산 수송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순찰 활동 중 휠체어를 탄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발견, 윈스톱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신원조회 후 관내 주민센터 복지와 협업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또 신동지구대에서는 지난 7일 추위와 배고픔으로 삶을 비관하며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행려자를 약 2시간의 설득 끝에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 하는 등 생명 구호 활동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올 설 연휴는 선제적 치안 활동으로 비교적 큰 사건·사고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면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귀경길 확보 및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

우아동에 대학생 전용 주택 조성

전주시·LH, 2022년 10월까지 155억원 투입 청년창업주택 신축 청년주택 80호·공공도서관·주민 위한 다목적 공간·주차장 등

전주 우아동에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창업주택이 조성된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주시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 10월까지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우아동 주민센터 인근에 대학생 전용의 '청년창업주택(행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청년창업주택은 연면적 5,415㎡에 지하층, 지상15층, 분양면적 43㎡ 규모로 신축된다. 여기에는 대학생 전용의 청년주택 80호와 공공도서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청년창업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LH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년창업주택 내 1~4층까지 조성되는 공공시설을 관리기

로 했다. LH는 청년창업주택 건설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5~15층의 주택 운영을 맡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 대학생 신청을 받아 2023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비창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주거 공간을 공급해 창업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찾마중길 권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